

야고보서 서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A.D. 62 년경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다.</li> <li>●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며 진정한 믿음은 변화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.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린다.</li> </ul>

1. 사실(Fact)	2. 의미(Meaning)	3. 적용(Application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믿음의 시련 앞에서(1:1-12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.</li> <li>②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아라.</li> <li>③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.</li> <li>④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여 구하라.</li> <li>⑤낮은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,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.</li> <li>⑥시련을 견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.</li> <li>● 시험은 또 하나의 기회이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Covid-19 으로 모임보다는 흩어짐의 시간에 나는 흩어진 곳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현장으로 삼고 있는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유혹 앞에서 (1:13-18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(유혹)하지 않으신다.</li> <li>②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욕심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출발점이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실개천은 삽으로 막을 수 있으나 큰 강은 댐으로도 막지 못한다. 내가 지금 삽으로 막아야 할 유혹의 실개천은 무엇인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말씀을 들음과 행함 (1:19-27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귀가 두 개요 입이 하나인 것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2:1 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나는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 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하고 있는가?</li> </ul>

<p>②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.</p>	<p>하라는 뜻이다 (사람과의 관계)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속히 순종해야 한다 (하나님과의 관계).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성도를 차별하지 않고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 (2:8)</li> <li>②지식적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 (2:19).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(2:17,26)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개스(Gas)불이 켜지면 주전자의 물은 끓게 된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예수님은 “열매로 나무를 안다” (마 7:16)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참된 믿음은 혀를 다스린다 (3:1-12)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말의 위험성(말의 재갈, 배의 키, 불씨).</li> <li>②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건강진단에 혀 검사가 필요하듯이 신앙의 상태 점검에도 말씨 검사가 필요하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나의 혀는 상처를 주는 혀인가? 아니면 학자의 혀처럼 곤핍한 자를 도와주는 혀인가?(사 50:4). 그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혀인가? (엡 4:29).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참된 믿음은 지혜를 가져다 준다 (3:13-18)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위로부터 내려온 지혜(성결, 화평, 관용, 양순, 긍휼, 선한 열매)</li> <li>②땅 위의 지혜(독한 시기, 다툼, 거짓말, 정욕, 귀신의 것)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화평을 가져오나, 땅 위의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을 가져온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? 그리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참된 믿음은 겸손을 가져다 준다 (4:1-10)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(4:6).</li> <li>②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(4:7)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시기하신다 (5:6).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문제다. 세상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.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나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는가? 아니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가? 만약</li> </ul>

<p>③하나님을 가까이 하라.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(4:8).</p> <p>④주 앞에서 낮추라. 그리하면 높이신다 (4:10).</p>	<p>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.</p>	<p>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참된 믿음은 인내한다 (5:7-11)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농부처럼 길이 참으라.</li> <li>②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.</li> <li>③옴의 인내를 배우라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(롬 5:3-4)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나는 환난을 겪었는데 인내가 생기지 않았는가? 인내했는데 연단이 되지 않았는가?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?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참된 믿음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, 즐거워할 때 찬송한다 (5:13-18)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(5:16).</li> <li>②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(전 7:14).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(약 5:13).</li> <li>●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다.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신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고난은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다. 고난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. 항상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될 때가 온다.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?</li> <li>●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(대하 6:19). 사순절을 지나며 나의 금식과 새벽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라.</li> </ul>